

산골귀이

안주마을이야기 2024.02 제144호



2024년 8월호 수해 딛고 일어는 구름골, 운주

200년 만이라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날 강둑을 넘어온 물이 일상을 쓸어가 버렸다. 자연의 위용 앞에 사람은 한없이 약한 존재였지만 그 쓰러진 삶을 일으켜 세운 것도 사람이었다.

사건실명: 지난 7월 10일 이른 새벽 폭우로 장선천 제방이 무너져 수해를 입은 운주면 완장마을에서 군 장병들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 삶의 풍경 고향마을소장 이승렬 ... 12-13P
- 서울의 풍경 고향마을소장 이승렬 ... 14-15P
- 삼례도서관 책놀이프로그램 ... 16P
- 다스림음악 육자배기 ... 19P

관련 기사 2-13면

7월 10일 자정부터 2시 사이

그날 운주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가 왔다

기상청 레이더 영상 속에서 남색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를 뿌리는 아주 강한 비구름이다. 7월 10일 자정부터 2시 사이 이 비구름이 천천히 이동하며 충청과 전북을 강타했다. 북쪽의 고기압과 서해상의 저기압이 합작한 2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였다. 이 재난의 한복판에 운주면이 있었다.

7월13일(3일차)

>>땀 뚫린 하늘, 무너진 일상

운주면 운주로는 피해현장에서 끄집어낸 진흙투성이 가재도구와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찾은 봉사 차량으로 일대가 혼잡했다. 운주체육공원, 운주초 운동장은 밭으로 변했다. 건강원, 생닭집, 종합설비, 인테리어, 자재총판, 식당, 농협창고. 운주로에 기대어 생을 이어가던 가게들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베개며 장판, 매트리스, 가구 등이 그날 새벽의 참혹함을 증명했다. 생활문화공동체센터 뒷마당에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가 흙물을 뒤집어쓴 채 서 있었다. 침수차량을 실은 견인차들이 분주히 오갔다.

운주세탁소 지인자 씨는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들어찬 흙물을 꺼내고 있었다. “이 기계는 이제 못 써요. 수리가 안 된대요.” 세탁소 안은 온통 흙바닥이었다. 벽에 남은 흔적으로 추정하면 그날 90여cm 높이까지 물이 들어왔다. 그녀가 간혹 잠을 자기도 하는 쪽방은 충분히 잠기는 수위다. 그날 그녀가 집이 아닌 가게에서 잠을 잤다면 두려운 순간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손님들이 맡긴 세탁물은 옷걸이 매달려 있어 손상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물에 젖고 진흙에 망가진 재봉틀이며 냉장고가 가게 앞에서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어난 물은 낮은 자에게 더 가혹했다. 일대 주민들은 그날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마을이 강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장선천을 넘어온 물이 북당골과 부영골에서 쏟아진 물과 합세해 내촌마을과 중촌마을 등을 휩쓸었다.

내촌마을 임선우 씨의 발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구겨진 비닐하우스 철 구조물로 엉망이었다. 모두 다른 곳에서 떠밀려 온 것이다. “그날 일대



7월 10일 완주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운주 장선천 범람으로 침수된 주택에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완주소방서 제공

가 가슴높이까지 찼어요. 물살이 얼마나 썰는가 전봇대가 쓰러지고 컨테이너가 밀릴 정도였지요.”

박명철, 박수연 씨는 물에 쓸려 온 비닐하우스에

막혀 열리지 않는 현관 대신 거실 창을 통해 가까스로 몸을 피했다. “문이 안 열리니 이대로 죽는 구나 싶었어요. 지금도 놀란 가슴이 가라앉지 않아요.” 탈출한 주민들은 옥상이나 산에 올라가 구조대를 기다렸다.

이선재 씨의 집은 장선천에 붙어 있다. 그날 새벽 2시 30분쯤 그녀가 잠에서 깬 때 장선천이 범람하고 있었다. “일어나니 이미 화장실까지 물이 차서 찰랑찰랑하더라고요. 엄청 무서웠어요. 다행히 도로까지는 물이 안 들어와서 차를 가지고 장선교 너머 월당으로 대피할 수 있었어요. 혈압약을 집에 두고와 가지러 가고 싶었는데 이미 그럴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장선천과 주거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운주 토박이로 1955년생인 이 씨가 난생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재난현장으로 달려온 사람들

운주면행정복지센터에 재난피해복구 캠프가 세워졌다. 완주군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모범운전자,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한전 등 수많은 사람이 피해복구를 위해 달려왔다.

삼성과 엘지 등 가전 서비스센터도 출장소를 차려 주민들의 가전을 살폈다. 삼성전자서비스 광주센터 오종민 씨는 이날 침수 세탁기를 뜯어 세척하고 있었다.

“당시 전기를 켜는 상태만 아니라면 대개 수리가 가능합니다. 세척 해서 건조하면 다시 작동하는 경우가 많죠. 냉장고 같은 건 물이 닿는 순간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요. 다만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은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출장소에는 사흘간 50여 건의 A/S가 접수됐다. 이보다 훨씬 많은 가전이 길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수리가 어려운 제품들도 다수 있었다. 가전 수리현장 한쪽에는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서비스가 수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팀은 이날만 1,00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다. 이들은 수해 첫날



7월 10일 완주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운주 장선천 범람으로 침수된 주택에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완주소방서 제공



지난 7월 10일 새벽 폭우로 장선천이 넘치고 둑이 무너지면서 주변 논밭이 쓸대밭으로 변했다. 한 주민이 폭우가 휩쓸고 간 감나무 밭과 비닐하우스를 가리키고 있다.

부터 달려와 땀을 흘리고 있었다. 현장을 지키고 있던 서선영 국장과 이은주 팀장은 “이곳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18일(9일차)

>>씻어내고 메우고 바로 세우고

다시 찾은 운주로는 전정터를 방불케 했던 전주와는 조금 달랐다. 망가진 살림살이로 가득했던 거리가 정비되어 있었고 진흙으로 가득했던 가게 안도 정돈되어 있었다. 몇몇 가게는 다시 문 열 준비로 바빴다. 하지만 침수 흔적은 여전했다. 조인자(56) 씨는 이날 완주군여성합창단과 함께 호꼬빠기 유원지 수해복구 현장을 지원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이었다. 그녀는 앞서 완주군새마을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운주면을 찾아 수해복구를 지원했다. “11일 첫 방문 당시 현장은 암담할 정도로 처참했어요. 작년 비 피해 때도 왔었는데 그때와는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도 봉사자들이 있어 한주 만에 이만큼이나 정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주 내내 비 소식이 예보됐다. 이날 오전도 빗줄기가 거셴다. 수해를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복구도 방해하고 있었지만 봉사자들의 발길까지는 막지 못했다. 이날만 300여 명이 운주를 찾았다. 대송한지마을 송명성 관장도 이날 내리 퍼 부는 비를 맞으며 호꼬빠기 복구현장에 있었다. 그는 원래 완창마을 건너편 호성골유원지 복구를 도울 계획이었는데 오전에 쏟아진 비로 장선천 물이

불어나 고립될까 우려돼 급히 이곳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운주를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복구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피해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수 운주면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몇 날 며칠을 현장에서 먹고 자며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운주면체육공원 주차장에는 쓰레기 산이 생겨났다. 침수가옥 등에서 수거해온 살림살이가 효용을 잃은 채 쌓여 있었다. 주민들은 그만큼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그 이상의 고통에 짓눌려 있는 듯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재난안내문자가 날라왔다.

7월25일(16일차)

>>상가 간판에 다시 불이 켜졌다

운주로는 점차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마당 한편에 이불이며 옷가지를 널어놓거나 수확한 고추를 말리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벌써 영업을 시작한 가게도 있었다. 파출소 옆 옛날짜장은 손님들로 붐볐다. 조성옥 사장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물이 덜 들어와서 지난주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을 재개 못 한 가게들도 다시 문 열 준비로 분주했다. 머리사랑 미장원도 그중 하나였는데 전현순 사장은 이날 26년 된 간판을 새로 달고 유리창 시트지도 새로 붙였다. “방안까지 물이 찼어요. 온통 진흙이어서 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울만 원래 있던 거고 집기



운주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희태 완주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듣고 있다. 운주면 완창리 피해현장을 방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박정수 운주면장. 완주소방서 대원들이 복구지원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운주 수해지역 현장을 돌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5700명 넘는 이들 기꺼이 찾아와 도움의 손길



며 바닥이며 싹 새로 했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순 없어요. 얼른 기운 차려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협 인근 용평식당과 초원식당도 29일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용평식당 안에 들어서니 선풍기가 식당 내부와 방안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최혜순 사장은 “지금도 습기가 많아서 말리느라 정신이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운주면행정복지센터는 여전히 많은 봉사자로 북적였지만 재난현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완주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는 지난 22일을 끝으로 철수했다. 밥차가 필요한 상황은 지났다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 현장에 필요한 밥은 신청자에 한해 도시락 형태로 배달된다.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완주군의 호우 피해는 352억 원으로 사유시설 1,760건에 117억 원, 공공시설 113건에 235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112억 원을 포함해 복구비는 530억 원(국비 389억 원, 도비 67억 원, 군비 74억 원)으로 잠정 확보됐다.

40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절대다수가 운주면에서 나왔다. 이 중 48명의 주민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심각하게 망가진 논밭은 농사를 다시 지어야 한다. 호우경보 뒤에는 폭염특보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지원은 마음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묵은 때를 벗겨내듯 흙탕물에 잠겼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장선천은 벌써 푸르름을 회복했다. 이제 용평식당 순두부도 초원식당 백반도 다시 먹을 수 있다. 굳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5,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재난현장을 찾아 힘을 보탤다. 이들 덕분이다. 한편 군에 따르면 7월 29일 기준 복구율은 87%다. 



삼성, LG전자 등이 가전제품 수리지원에 나섰다. 복구지원에 나선 봉동로타리클럽 회원들과 의용소방대



“마냥 냅놓고 있을 순 없어요”



폭우피해를 입은 운주면 소재지 상가 주민들이 7월 15일 오전 도로에 가재도구를 내놓고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7월 10일 새벽 장선천의 범람으로 폭우피해를 입은 운주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농가의 농사용 상자들을 세척하고 있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얼른 기운 차려 일어나야죠”



집중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보름째인 7월 25일 운주면소재지는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전기통신선 복구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주차장 공터에는 잠깐의 퇴약벌에 수확한 고추를 말리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가운데) 한 미장원은 간판과 내부공사를 새로 하고 영업준비에 한창이다. (오른쪽)



운주면체육공원 주차장에 쌓인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었다.

복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학교도, 가게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폭우가 휩쓸고 간 16일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상가 및 주택가에 대한 청소와 복구가 한창이었다. 간밤의 악몽을 서로 털어내며 복구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아직까지 피해를 본 것이 믿기지 않는다. 보고만 있으면 속만 상해 더 열심히 치우려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들은 운주면행정복지센터나 운주초등학교, 운주동부교회 대피소에서 지낼 계획이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복구돼 집으로 돌아가 평소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이다.

운주이용원 김광태, 박윤순 부부

운주 토박이 김광태, 박윤순 씨는 내촌마을에서 이용원을 운영한 지 40년이 되어간다. 세월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손님의 발걸음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용원이 침수됐다. 벽의 반절 높이만큼 들어찬 흙탕물 때문에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온갖 소도구들이 오염되고, 의자, 세면대 등 웬만한 가구는 다 못쓰게 되었다. 이용원을 집어삼킨 물은 부부의 집안까지 밀려들었고, 윤순 씨는 먼저 지붕 위로 올라간 남편이 끌어올려준 덕분에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윤순 씨는 “그래도 일단 어디 다치지는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망가진 가구나 침구류, 장판 밑에 스며든 오염물 등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수해복구를 위해 도와준 군인,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첫날보다 많이 나아진 상황이지만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완창마을 주광철 씨

비가 점점 거세게 와 집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집에서 두꺼운 외투와 손전등을 챙겨 집 앞 높은 곳을 찾아 곳감 건조장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119에 신고하니 진입이 불가해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하염없이 기다리며 날이 밝아오니 그제야 비가 그치면서 구조대원이 구조를 하러 왔다. 현재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수해로 인한 가족들도 많이 피해를 봤다. 하루 빨리 복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운주철물점

돌아온 곳엔 침수로 인해 창고는 이미 물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 됐다. 날이 밝자마자 일부 물건을 닦고 있는데 피해가 심각하다. 철물점 앞에 있는 화분들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틈틈이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장작나무는 진흙으로 뒤덮여 사용할 수도 없고 금속 파이프, 볼트, 칼 같은 것들은 전부 씻어서 현재 내놓은 것들이다.

새마을부녀회 연합회장 강래원 씨

장선천 하류에 있는 완창마을은 주택보다 농경지가 더 많아서 가구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훨씬 컸다. 상류 쪽 내촌마을이 좁은 농수로 범람 때문이었다면, 아래쪽은 제방이 무너져 불어난 물줄기가 세 갈래로 나뉘는 바람에 피해 범위와 규모가 더 심각했다. 완창마을에서도 장선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강래원 씨의 비닐하우스 18개 동은 위에서부터 밀려내려오는 물과 쓰레기에 완전히 휩쓸렸다. 래원 씨는 “폭삭 내려앉아 뼈대도 남아 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잔재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한 심정을




내촌마을 주민이 무너진 비닐하우스 철근을 분해하고 있다.

토로했다. 개인이 직접 손으로 치울 수는 없고 중장비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중장비 작업이 가능한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생업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보다 처지가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해복구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일단 저한테는 몸 뉘힐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마저도 침수돼서 밖에서 머무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어서 일하는 거예요.”

내촌마을 끝집 임복성 어르신

내촌마을 끝집 임복성 어르신은 70년이 넘는 세월을 내촌마을에서 살았다. 운주면의 제방은 약 10여 년 전 조성됐는데 몇 번의 침수피해가 잇따랐지만 마을 전체가 이렇게 잠긴 적은 없었다고 한다. 임복성 어르신은 “새벽 4시에 비가 많이와 현관문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옆 창문을 넘어 나오니 차고에 주차해둔 차는 이미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였고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 안주인이랑 살려고 옆에 산 위로 올라가 아침까지 구조되지만 기다렸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급한 전자제품을 주문해주고 주말에는 내려와서 함께 치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주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운주초등학교와 운주초 병설유치원 내부는 이미 물이 가득 찼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던 장소는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됐다. 운주초 관계자는 “1층 교실까지 모두 물이 들이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리하는데 며칠을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운주초는 병설유치원과 교사동 1층이 침수돼 현재 2층에서 정상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군 7.8~10. 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 결과

1. 호우상황

- **특보현황** 호우주의보(7.9. 19:40) → 호우경보(7.10. 02:00)→ 호우주의보 해제(7.10. 08:30)
- **누적강우량** 평균 180.1mm(7.9. ~ 7.11, 15:00 기준)
- **특별재난지역 선포 : '24. 7. 15.**

2. 피해집계

□ 인명피해 : 없음

- **이재민 발생 : 일시대피자 406명(귀가 358, 미귀가 48)**

□ 재산피해 : 1,893건 피해액 352억원

- **사유시설** 1,760건 피해액 117억원
주택(전파 4, 반파 5, 침수 165), 소상공인시설 94개소, 농작물 297.6ha, 농경지 34.1ha, 산림작물 94.9ha, 가축 2,210ha, 농경지 114ha 등
- **공공시설** 133건 피해액 235억 - 소화천 55, 하천 14, 도로 16, 수리시설 4 등

3. 복구지원

- **장비지원** 누계 2,416대(굴착기 1,793, 덤프트럭 456, 양수기 20, 기타 143)
- **인력지원** 5,764명(공무원 833, 군 930, 소방 241, 의용소방 525, 경찰 229, 자율방재 502, 기타 2,504)
- **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 272개 밥차 11,610인분 생수 27,784개 임시주거텐트 50개 등
- **수방자재** 톤백 14,570 방수포 190 PP마대 10,000 장갑 3,300 장화 800 팔토시 450 등
- **재난예비비** 31억원(응급복구 장비임차비 29, 재료비 1.5, 인건비 0.5)

4. 복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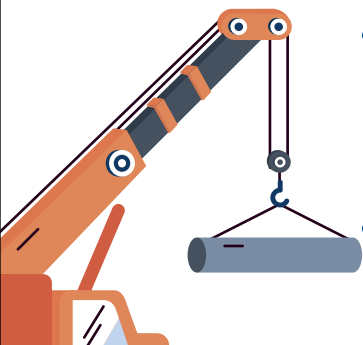
□ 530억원(공공 491, 사유 39/국 389(추가지원 112억원 포함), 도 67, 군 74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39.2억원(국 29, 도 4.9, 군 5.3), 자체 0.55억원
- **공공시설** 133개소 491억원(국 360, 도 62, 시군 69)
- **개선복구사업 요청** 3개 사업(748억원)
하천 3개소(완주 장선천 335억·성북천 198억·괴목동천 215억)

5. 복구 계획

□ 응급복구 현황 (복구율 87%)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 주택 및 소상공인 : 재난예비비 사용 선지급 : '24. 8월 중
 - 농어업 분야 등 :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성립전 등 행정절차 후 추석전 지급
- **공공시설** 예비비 등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선 발주 : '24. 8월 중



수해복구 든든한 뒷심 **사랑의 밥차**

힘들 때일수록 밥 잘 챙겨먹어야죠



7월 16일 오후 1시. 운주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는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 35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운주적십자 5명이 밥차 운영 및 배식 지원에 힘썼으며, 급식 수혜인원은 총 845명이었다.

완주군자원봉사센터는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난 10일 오전부터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긴급히 지원하여 밥차 배식을 시작했다. 첫날 750명을 시작으로 많게는 1,000명, 적게는 424명까지 보름동안 1만1,610명이 밥차를 통해 배식 받았다. 자원봉사센터와 밥차 봉사단은 이재민과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 자원봉사자, 소방대원, 경찰 등의 점심 식사와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저녁 도시락을 제공해 왔다.

밥차 봉사단 신춘화 회장은 “힘들 때일수록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기운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든다”고 말했다.

음식이 준비되면 새마을 부녀회, 지역예술단체, 적십자 등으로 구성된 운주사랑봉사단이 도시락을 포장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여 나눠줬다. 운주사랑봉사단으로 모인 주민들 역시 수해를 입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었다. 직접적인 밥차 운영 인력 외에도 식료품과 성금 등을 전달하여 운주면 수해 주민을 돕는 경우도 많았다. 완주군 상관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현섭)가 기부한 성금 10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로 전달되어 사랑의 밥차 운영에 쓰였고, 밥차 운영 종료 일인 22일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지원한 닭 600마리로 만든 삼계탕이 배식됐다. 표현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 이웃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은 같다.

최영만 완주군자원봉사센터장은 “이재민들과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왔다”며 “하루 빨리 수해가 복구되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 22일을 마지막으로 13일간의 밥차 운영을 종료한 자원봉사센터는 12일부터 긴급 소집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함께 현장 복구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랑의 밥차 운영 인력 및 급식 수혜인원

일자	완주군자원봉사센터	기타 단체	급식 수혜 인원
7/10	20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750명
7/11	40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850명
7/12	39명	운주사랑봉사단 7명	1,000명
7/13	43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적십자 연합 및 운주적십자 14명	870명
7/14	38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의용소방대 58명	904명
7/15	35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완주군장애인연합회 4명	520명
7/16	35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운주적십자 5명	845명
7/17	35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운주적십자 5명 한국여성소비자연합 7명	721명
7/18	40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운주적십자 5명	975명
7/19	33명	진안군자원봉사센터 11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운주적십자 5명	633명
7/20	41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운주적십자 5명 완주군여성자원활동센터 10명	705명
7/21	34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운주적십자 5명 완주군여성자원활동센터 8명 삼례읍새마을부녀회 12명	424명
7/22	41명	운주사랑봉사단 10명 운주적십자 5명 완주군여성자원활동센터 6명 전주연탄은행 30명 전주라이온스클럽 7명	638명

사랑의 밥차 자원봉사자들이 약 850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있다.



신속히 진료공백 메운 **완주군보건소+운주면보건지소**

건강관리지원반 꾸려 주민건강 밀착 돌봄

범람한 장선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한 운주면보건지소도 침수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10일 새벽 보건지소 건물 1층의 절반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고, 침수된 의료기기 및 설비, 의약품 등은 전부 폐기 처리되었다.

수해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임시 운주면보건지소를 꾸리는 게 가장 급선무였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완주군보건소 전 직원이 운주면보건지소 복구작업에 투입됐고, 소방대원과 지역자율방재단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건지소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완주군은 부상자 응급치료 및 처치를 위한 임시 의료반, 긴급 의약품 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긴급 의료 지원반을 편성·운영했다. 지난 12일부터는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한방·치과·내과 진료를 하고 있다.

현재 운주면보건지소는 항생제, 해열제, 혈압강하제 등의 필요성이 높은 약부터 우선 구비하여 차례대로 부족한 물품을 채우면서 임시 보건지소를 원활히 운영 중이다.

운주면보건지소 이수윤 공보의는 “폭우로 범람한 오염수에 노출된 주민들이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 질병을 많이 앓는다. 장마철 습한 날씨와 겹쳐 수인성·식품·모기 매개 감염병, 접촉성 피부염, 안과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된 풍수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과 보건인력은 수해 지역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소독했으며, 약 160가구에 살균소독제·손 세정제·마스크·비누·살충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침수 피해로 운주면보건지소에 1대만 있던 원격의료 장비가 폐기되었다. 거동 불편자, 고위험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운주면보건지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의사와의 실시간 연락을 통해 진료·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보건 인력이 안부 전화, 직접 방문 등의 수단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재민 완주군보건소장은 “보건소 내 건강관리지원반 TF 팀을 구성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감시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지원반 TF 팀은 수해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한다. 또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비상연락처와 가까운 대피시설 위치를 안내하여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집중 방문 교육과 건강 키트도 제공하고 있다. **공**



호우피해로 운주면보건지소가 침수된 가운데 완주군보건소가 운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의료지원 중이다. 사진은 완주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주군보건소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완주군청 제공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추가지원 세금 감면 등 혜택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돼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용보험료 감면,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 수해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들도 수해복구 팔 걷어부쳤다

완주군의회 현장 찾아 지원

완주군의회 의원들도 수해복구를 위해 힘을 보탤다.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지난 13일 토요일 운주면 수해현장을 찾아 물에 젖은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밖으로 꺼내고 집안에 들어찬 진흙을 퍼냈다.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 전북도의원과 군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함께했다.

의원들은 수해가 났던 10일 당일에도 운주면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수시로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챙겨왔다.

의원들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맨 앞줄 오른쪽 끝)과 복구지원활동 중인 군의회 사무국 직원들
사진=완주군청, 완주군의회 제공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수해를 입은 운주면 산북리 하천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제공

단원 150여 명 구슬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이 수해복구 현장에 연일 투입돼 응급 복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운주, 화산면에 지난 9일부터 단원 150여 명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김용일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이 13개 읍·면 자율방재단에 피해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 동원령을 발령해 지역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시작으로, 세종, 남양주, 광주 등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지원이 더해지고 있다. 김용일 단장은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어 감사하다”며 “이번 도움을 잊지 않고,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손을 건넬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운주면행정복지센터 장은자 팀장 현장 대응 일지

7월10일(1일차)

- 10일 새벽에 운주면에 도착하니 장선천의 범람 위기로 다리를 봉쇄하여 마을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음
- 침수된 마을주민들은 놀란 마음 붙잡고 장선천이 다시 범람할까 싶어 물만 내려보고 있었음
- 장선천은 흡사 강처럼 넓고 빠른 물살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처럼 흐르고 있었음
- 사무실 여기저기서 피해 침수로 인한 놀람과 빠르게 침수를 확인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침
- 비가 쉬지 않고 내리고 사무실은 종일 피해 신고 전화와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룸
- 완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 첫날부터 수재민들을 위해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여,
- 밥 해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함.
-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는 쉼터를 설치해 이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함

7월11일(2일차)

- 소재지 마을인 중촌과 내촌이 잠기게 됨에 따라 군부대에서 처음으로 대민지원 하겠다고 방문함
- 여단 직할 75명, 예비군훈련대 36명 및 72통신대대 61명 총 172명으로 이루어진 군부대는 소재지 주택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가전과 가구를 집에서 꺼내어 손을 보태고, 주민들은 군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함
- LG전자에서 수해민들의 가전을 세척하고 고장수리를 해주겠다고 해 행정복지센터 한쪽에 천막을 치
- 2층 다목적강당 쉼터에서 오갈 데 없는 이재민 10세대가 임시거주하게 됨
- 아침에는 직원들이 김밥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사랑의 밥차에서 도시락을 제공함

7월12일(3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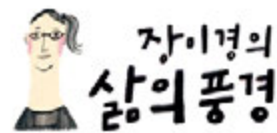
- 전주완주대대 75명, 화생방지원대대 22명, 72통신 77명, 예비군훈련대 34명, 사단통신대대 37명 및 여단 직할 74명 총 319명으로 이루어진 군부대는 소재지를 마무리하고 각 가정의 안방에 쌓인 진흙을 긁어내고 원상선과 원완창 마을 일부 침수가구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펼침
- 호우피해 소식을 들은 개인 및 단체의 자원봉사도 시작됨
- 전북특별자치도청, 완주청년대책이장단,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및 의용소방대는 피해 가정을 찾아 진흙을 퍼내고 가구와 가전을 밖에 내놓는 등 수해현장을 정리함
-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임시거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재민이 더 찾아와 총 12세대 18명이 거주하게 됨
- 이재민들은 낮에는 각자의 집에 가서 복구작업을 하고 밤이 되면 쉼터로 와 생활함

7월13일~17일 (4일~8일차)

- 여기저기 주택과 유원지에서 대민지원과 장비를 요청하고 부족한 자원봉사와 장비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달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운함과 감사의 감정이 얽힌 하루하루를 보냄

7월18일~25일 (9일~16일차)

- 주택엔 진흙과 생활쓰레기, 농작물 위에는 물살에 쓸려온 생활쓰레기 수북했고 장비로 청소할 수 없는 곳이 많아 대민봉사를 요청하는 가구가 많아짐
- 전북 곳곳의 자원봉사센터와 전국 곳곳의 자율방재단이 계속 운주면을 찾아 봉사했지만 하천을 끼고 펜션, 가든, 유원지를 운영했던 상가들은 하루 이틀에 끝날 양이 아니었음
- 자원봉사자의 공급과 수요가 맞으면 부족하지 않게 보내드렸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알아서 보내주겠지' 하는 가구는 가가호호 방문하지 못한 터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불만이 쌓여감
- 22일부터 사랑의 밥차가 종료되고 행정에서 운영했던 자원봉사 연계를 완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운주면 담당자는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수 있게 되었음
- 적은 인력으로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자원봉사를 연계하자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수해민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지원이 어려웠음
- 차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가구에 방문하여 몇 명이 며칠의 자원봉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속지후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수해가 일어나면 TF팀이 빨리 조성되어 자원봉사팀, 청소팀, 복구팀으로 일시에 인력을 투입하는 게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됨



파출소장 이승렬 이야기

고산 삼기초등학교는 '1946년 고산초등학교 삼기분교로 문을 열어 2003년 삼우초등학교와 통합되며 문을 닫기까지 57년 동안 3,500여 명의 아이들을 길러냈다고 한다.'(위키백과) 20여 년 전에 삼기초등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이 학교의 터는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공동체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로컬푸드 가공센터로 명맥을 이어왔고 지금은 완주군 미래행복센터가 자리하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 학교는 참 복이 많은 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주에 살던 내가 완주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학교에서 열린 2012년 퍼머컬처학교 과정이었으니 나도 이 터가 가진 복을 조금은 나누어 받지 않았을까 싶다. 38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고산파출소장을 끝으로 지난 6월 30일에 퇴직한 이승렬 소장님은 삼기초등학교 25회 졸업생이다.

“고향은 종암마을입니다. 삼기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신작로 길이 있었지만, 봉림재를 넘어서 다녔죠.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소 풀 베다가 먹고 그랬지요. 제가 3남 2녀 중에 장남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일을 많이 도왔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는 안 했어요. 중간치기를 많이 했죠. 산에 올라가서 중간치기를 열 명이 하면 서너 명이 더 놀다가 들켜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교 갔다 재를 넘어오면서 개구리 잡아서 구워서 먹고 그랬죠. 봄 되면 산에 가서 진달래 따서 먹고. 나 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60명씩 두 반이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고산이 물이 진짜 좋아요. 그때는 다슬기를 많이 잡았어요. 마을 어머니들이 다슬기를 잡아서 아이들 학비 조달하고 그랬죠. 다라이에 다슬기를 한가득 잡아서 팔았어요. 마을에 중앙시장에서 다슬기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낮에 잡은 다슬기를 밤에 그 사람 집에 가서 무게 달아서 팔고 그랬죠.”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는 작년 여름에 이승렬 소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에 친구를 태우고 원산마을에 들어섰는데 큰 나무가 길 위로 쓰러져 있어서

내 고향은
삼기리
종암마을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고 10분쯤 후에 현장에 맨 처음 도착한 분이 바로 이승렬 소장님과 동료 경찰분들이었다. 그때 소장님은 소방관, 경찰관, 면장님과 함께 밤늦게까지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면장실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던 것을 기억해 내셨다. 보통 공직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발령받을 때 망설이기도 한데 이승렬 소장님은 오히려 고향인 고산파출소 근무를 자원했고 그곳에서 경찰 생활의 마지막 1년 3개월을 고향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8년 경찰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의경으로 군대를 마치고 바로 경찰시험 합격해서 초임을 무주에서 근무했죠. 무주에서는 6년 정도 근무했고 전주에 10년 있다가 완주경찰서에서 한 20여년간 근무했어요. 그 사이에 군산도 가고 장수도 가고 했는데 그래도 길게 있었던 곳은 무주, 전주, 완주예요. 완주가 가장 오래됐죠. 우리 집이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자식 욕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시골애들인데 도회지 아이들 같다고. 항상 옷도 깨끗이 입고 머리도 상고머리로 깔끔하게 잘라놓고,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우리 어머니 성함은 박영자. 72세에 돌아가셨어요. 사랑이 크신 분이였죠. 그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러셨지요. ‘고산파출소 소장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고산파출소 소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고향 분들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고 너무나 좋은 대우를 받았죠. 고향 친구들도 사회활동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도움도 많이 주고 환대해줬죠. 지난 일이지만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경찰이라는 것을 해 보니까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이라는 존재가 주민들에게 안심을 줘요. 저는 고산파출소 근무할 때 항상 외등을 켜놓으라고 했어요.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불을 보기만 해도 안심할 수 있게. 마치 등대처럼요.”

TV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경찰이 언제나 범인을 잡으러 다니며 다소 강압적인 느낌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많은 경찰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하나라도 더 예방할 수 있을까. 이승렬 소장님은 이런 일들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했다.

“고산지역은 의외로 교통사고가 많아요. 보이스피싱 사고도 많고요. 그 두 가지를 줄이기 위해



경찰 근무시절(사진 본인제공)
아래_ 퇴임하자마자 2주 뒤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승렬씨. 도서관 청경업무 중이다.



서 중점적으로 노력했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위 카메라 설치 작업도 진행했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책임자들과 수시로 회의하면서 예방도 많이 했죠. 전라북도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액이 연 60억 정도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신고된 피해 발생액이 천억 정도 됩니다. 고산 같은 경우도 하루 한 건 정도는 발생한다고 보면 되죠. 이걸 어르신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연령대도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퇴임하기 전까지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다 이루진 못했네요.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도 시간이 짧아서 다 이루진 못했죠. 고향이라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셨겠죠.”

소장님은 경찰이 천직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천성이 잘 쉬지 못한다고 했다. 현직에 있을 때도 3일 이상 휴가를 간 적이 거의 없어서 퇴직하면 여행이나 실컷 다니고 편안하게 쉬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며칠 쉬지도 못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제가 무주에 처음 발령 났을 때 그 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경찰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학교 선생님을 하면 딱 맞겠다고. 인상이 경찰 인상이 전혀 아니라고요. 제가 순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제가 38년 경찰 생활하는 동안 징계 하나 안 먹었어요. 원래 경찰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징계가 많은 편인데 저는 한 번도 없었죠. 시말서 하나 사유서 하나 제출해본 적 없어요. 지나고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찰 시작할 때만 해도 경찰이 지금처럼 친절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강압적이어야 하는 직업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도그냥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요. 지금의 경찰상이랑 맞았던 거죠. 경찰이라는 게 언제나 주민 가까이 있어야 해요.”

이승렬 소장님은 퇴직하고도 고산지역의 주민분들로부터 일고여덟 번의 송별회를 받았다고 한다. 그 뒤로도 몇 군데 더 송별 모임을 제안받았지만 고마운 마음만 받고 사양했다고 한다. 어두워지면 고산파출소에 항상 켜두셨던 외등처럼 성실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지켜낸 것에 대한 당연한 대우였을 것이다. 소장님이 새로 일을 시작하신 일터에서도 외등처럼, 등대처럼 잔잔하게 빛을 밝히는 삶을 사시길 기대한다.

글-사진=장미경 |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설립한 **키울협동조합**

가족구성원 눈높이에 **딱, 맞춘** 프로그램 호평



김인숙 대표

비가 그친 이른 아침.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뒤편 농장에서 “안녕 안녕 안녕 키울 가족들” 노래가 흘러나온다. 노래를 부르는 키울협동조합은 2017년 장애아동 재활시설인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의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곳이다. 주말에 활동하는 농촌돌봄농장은 아이와 가족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뜻을 함께하고 있다.

» 세상을 보는 힘으로 서로를 믿다

키울협동조합은 농촌돌봄농장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이 스스로 자립을 위한 힘을 키우고 농업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설립됐다.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5년 차. 농장은 5년째 주말마다 장애 아동 및 가족들과 함께 농업 활동을 한다. 작년까지는 20가족이 활동했고 올해는 10가족이 함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말엔 항상 아이들과 어른들로 북적이며 웃음소리가 흘러넘친다.

키울협동조합은 발달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농장프로그램, 비장애 형제들을 위한 토크콘서트, 미술치료, 부모모임 등 가족 모두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큰 특징이다. 이 중 ‘키울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충격,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키울협동조합에서는 가족 단위로 정서지원을 하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해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변화도 눈에 띈다. 초기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데려와 주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지난해 농장에서 매실청과 수세미청, 고구마 등을 로컬푸드와 지인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올해에는 그동안 해왔던 부모 지원, 가족지원, 농장 활동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가족캠프와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다.

김인숙 대표는 “농장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점차 익숙해져 가는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촌돌봄농장을 통한 프로그램이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다.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 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율이네



승찬이네



에나네



윤재네

키울협동조합 +

[조합 정보]

- 대표자 김인숙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1길 49-60,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 장애아동의 돌봄 치유를 위한 가족농장 프로그램
- 장애아동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 농촌돌봄농장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 태양처럼 빛나는 아이들과 함께라면

키움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는 ‘함께 어울리는’이다. 농촌돌봄농장을 기획할 때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형제, 부모 모두가 농장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시작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수익활동으로도 나타났다. 농촌돌봄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콩, 고구마, 호박, 수세미, 고추 등 수익성 있는 작물을 주요 작물로 구성하여 재배하며 이때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통해 대상자에게 수익을 배분해 1차 가공을 통해 수익성을 확대한 것이다. 이때 발생했던 수익금은 앞으로의 자립을 위해 농장에 재투자하며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김 대표는 “발달장애아동의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한다. 165㎡ 규모의 시설 하우스에는 요리활동용 채소 등을 수확한 농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다 함께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농촌돌봄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농업을 사용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역 사회 간의 연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주말 이번 활동은 여름에 많이 찾는 천연 아로마 모기 기피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직접 병에 원액을 따라보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협력해 판매 상품으로 만들었다.

참가 가족의 한 부모는 “아이들과 농장에서 함께 했던 시간이 다층적으로 축적된 노력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더 나은 자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농촌돌봄농장
농업활동 참여가족들

은설이네



태욱이네



하진이네

삼례도서관 노인인지활동 책놀이 프로그램



삼례도서관 책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흥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읽은 책을 펼쳐보이며 웃고 있다.

즐겁고, 유쾌하게

우리는 책으로 치매예방한다오

지난 7월 16일 오후 2시, 뜨거운 해를 피해 어르신들이 모인 신흥마을 경로당 안에서 동화책 읽기가 한창이었다. ‘석수장이 아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겨가며 글을 읽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명랑하다.

이날 진행된 노인인지활동 책놀이 프로그램(이하 치매예방 책놀이)은 삼례도서관이 2024년도 전북 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시작된 것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참여자들을 위해 복지관과 마을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책놀이 전문 지도사(이하 지도사)는 전래동화와 같은 친숙한 내용의 그림책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함께 읽은 동화책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말놀이부터 이야기의 소재인 돌맹이를 이용한 야바위, 빈 컵에 물건을 숨기는 기억력 게임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는 동안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중 인지보드게임 ‘멤멤’이 가장 반응이 좋았다. 차례대로 돌아가며 보드판 위에 매미 자석을 올려 놓는데, 거리가 가까운 자석은 찌르르 매미 우는 소리를 내

며 달라붙어버린다. 어디에 놓을지 한참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내려놓은 자석이 시끄럽게 달라붙으면 너도나도 와르르 웃음이 터졌다.

이경자(75) 어르신은 “머리를 써야 하나까 게임하는 동안 잔뜩 집중하게 된다. 긴장감과 재미 모두 느낄 수 있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신흥마을 경로당에서 책놀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하택임(77) 경로당장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처음 삼례도서관에서 책놀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전화가 왔고,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오늘이 9회차로 마지막 날인데, 다들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끝난다고 너무 아쉬워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책놀이 전문 지도사 원현화(53), 이순옥(59) 씨도 마지막 수업을 아쉬워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들은 “어르신들과 많이 친해졌다. 작은 것 하나에도 반응을 잘 해주셔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절로 웃음이 나고, 활력도 받아 간다”고 웃으며 “다음에 또 어르신들을 뵙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치매극복 선도하는 삼례도서관

2020년도에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받은 삼례도서관은 2023년도 전북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한 치매예방 책놀이 전문 지도사들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흥마을 경로당, 삼봉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책놀이 전문 지도사들을 파견한 것도 그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키워드 -#노동 #짧은글 #글쓰기 #진로 #직업

6411의 목소리 지음 | 창비 | 376쪽 | 2024 | 20,000원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소설을 쓰는 노동자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노동에 기대어 하루를 살아간다. 농민의 노동으로 밥을 먹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노동으로 정보를 얻고, 택배노동자의 노동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물건을 받는다. 여기, 나를 살게 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묻는다. 대체 나의 노동은 얼마짜리입니까?”

세상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을까.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면 재벌, 의사, 아이돌 등 스무 가지 정도의 직업만 있는 세상 같다. 그나마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라는 세상 속에서 만사를 깨우치고 습득하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본다며 걱정한다지만, 어쩌면 빨간 버튼 세상 속이 더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직업 100개는 넘을 것 같은 세상.

〈나는 얼마짜리입니까〉에는 75개의 직업이 담겨 있다. 예능작가, 캐디, 배우, 번역가, 대리운전기사, 인디밴드 멤버 등 우리 곁에 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직업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각자의 이야기들이 길지 않은 분량으로 차곡차곡 담겨 있다. 활자를 오래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리 어렵지 않은 독서가 될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노동은 얼마짜리일까.’ 무엇보다 ‘나는 오늘 하루 나의 어떤 노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까.’ 곰곰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몇 개의 이름 모를 도움으로 나의 하루가 채워지고 있을까.’ 세어본다. 시골살이가 기분이 좋은 건 앞선 질문들에 어느 정도 답을 제까닥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현창 택배기사님, 유은영 초원국수 사장님, 고세권 택시기사님... 감사하다.

초중고 진로교육이나 멘토링을 자주 요청받는 편인데, 아이들에게 스무 가지의 직업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깐. 우리 아이들이 스무 가지의 직업 안에서 안위하며 안심하며 사는 일보다 더 많은 직업과 일의 세계를 유명하며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얼마짜리입니까〉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만화경이자 현미경이 되길.

림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 설레

#63 성급했어



허루, 일주일, 일년
계정함도 짜두고
해야할 일도 알려주고 ...

... ..
식당도 관리해주고
일 할려고
체크하고 ...
작업일 평가도
부연반 ...

운동장

금주당

음... 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설레는 완주에 온지 11년차 청년이다. 그림그리고 디자인한다.

혼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2024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완주군종합복지관-삼봉사회복지관

■ 완주군종합복지관

완주군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완주군민 및 완주 소재지 직장인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보 또는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글을 확인하면 된다.

- 접수기간: 8월 12일 (월)~14일 (수) 오후 6시 까지
- 접수방법: 완주군 둔산3로 94,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4강의실, 방문접수(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문의: 063-290-2164

■ 삼봉사회복지관

삼봉사회복지관에서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실버노래교실, 소도구 필라테스, 스마트폰활용교육, 캘리그래피 3급, 줄리하프, 라인댄스, 오카리나, 난타 이며 주민들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모집대상은 완주군민 및 완주 소재지 직장인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보 또는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글을 확인하면 된다.

- 접수기간: 8월 8일 (목)~14일 (수) 오후 5시 까지
- 접수방법: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 방문접수
- 문의: 063-247-7532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해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로디 (♂)
젠틀하고 짧은 다리가 매력적인 로디!

-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약 16kg
나이: 4살 추정
건강상태: 중성화 완료, 심장사상충 예방약 매달 복용 중
로디는 순한 성격으로 봉사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아이이다. 보호소에서 대견 관계도 매우 좋으며 훈련을 통한 바깥 환경도 잘 적응한다. 이런 로디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끈질긴 삶의 찬가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8) [육자배기]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내 정은 청산이요 님의 정은 녹수로구나
녹수야 흐르건만 청산이야 변할쏘나
아마도 녹수가 청산을 못 잊어 휘휘 감고만 도는
구나

‘느림의 미학’이 제대로 구현된 품격의 가락. 남도민요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육자배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내 사랑을 변함없는 푸른 산에, 님의 사랑을 항상 변하며 흐르는 푸른 물에 비유하는 시심의 격이 우선 그럴듯합니다. 그러다가 녹수가 오히려 청산을 못 잊어 휘휘 감고 돌 수도 있다는 반전의 상상이 애처롭지만 정겹습니다. 님의 변심에도 징징대지 않고 품어주는 너를 새를 엿볼 수 있습니다, 슬퍼도 비탄에 잠기지는 않는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처연함까지 녹아있는, 좋아하는 하지만 한 대목도 제대로 따라부르지 못하는 “외롭고 높고 쓸쓸”한 노래입니다. 보통 민요는 음악구조가 단순하고 가락이 서정적입니다. 그에 비해 판소리와 산조를 키워낸 남도의 민요는 보다 풍성하고 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낮은 소리는 떨어주고 중간 소리는 평으로 내고 그보다 높은 소리는 반드시 꺾는 목을 쓰는” 등 아마추어들은 흉내 내기 어려운 구성진 맛을 풍기는 것이 남도민요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소리판을 이끄는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불리다 보니 예술성 짙은 성악곡으로 발전해 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자배기’는 이런 남도민요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가락도 아름답고 가사까지 정교하여 우리 민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원래는 밭에서 김을 매거나 길쌈을 할 때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흥얼거리던 일노래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청준의 「해변의 육자배기」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아기를 볼 때나 길쌈 일을 할 때나 남도 여인들은 흔히 그 한숨을 내뿜는 듯한 이상스런 가락의 노랫소리 같은 걸 웅얼대길 잘하는데, 말이 곧 노래가 되고 노래가 곧 말이 되는 그 육자배기 가락 같은 웅얼거림 소리는 여인네가 모이는 밭머리 근처엔 더구나 흔했다. 어머니 역시도 밭을 매면서 언제나 그 웅얼거림을 지녔었다. 입으로 소리를 웅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당신의 소리를 지니고 다니면서 이랑이랑 그것을 뿌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괴상한 소리였다. 그것이 마치 어머니가 누려온 끈질긴 삶의 찬가라도 되는 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쉬임 없이 지니고 불러내야 하는 필생의 노래나 되듯이 말이다. 어머니는 그 당신의 소리에 젖어서 당신의 일을 끝내는 것도 잊은 듯이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슬픔이라 했습니다.

슬퍼할 일은 어디에도 있고 언제라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오면 다른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문제는 그런 강력하고 불가피한 슬픔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에 있습니다. 시인이야말로 “자신이 처한 시대와 못 목숨들의 열망에 깊이 사무쳐, 뜨겁게 때로 슬개 울고 부르짖는 자”(김사인)이니 시를 읽으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를 가사로 신묘한 가락을 더한 것이 노래요 민요이니 이런 음악에 기대보라 하는 것도 허한 주문만은 아닐 듯싶습니다. 다스림의 음악을 자꾸 되뇌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 ‘육자배기’는 보통 여러 사람이 이어 부르는데 “~고나(구나) 헤”의 후렴을 함께 부르면서 노래를 이어갑니다. 마치 서로의 설움이나 슬픔을 공감하며 “그러!” “맞어!” “그렇지!” “아무렴!” 맞장구를 치며 격려 위로하는 듯합니다. 슬픔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서로 나누면 견딜만하게 무너지겠지요.

이 처연하고 아름다운, 아니 슬퍼서 아름답고 절절한 남도민요의 백미, 폭염과 폭우의 아수라장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자주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히 아끼는 희귀 영상 하나 피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30여 년 전 진도 조공례명인 댁에서 동네 아낙들이 평상에 모여 앉아 부르는 모습입니다. 옛 우리 어머니들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런 식으로 모여 피로도 풀고 설움도 달랠 것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소식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만경강 ‘줍깅’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가 자기주도 봉사활동 동아리인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7월 20일 여름방학을 맞아 만경강 주변에서 ‘줍깅’을 진행했다. 줍깅이란 한국어 ‘줍(다)’과 영어 ‘jogging’의 합

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한다.

고산중학교 1학년 청소년 10명으로 구성된 자기주도봉사활동 동아리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는 환경과 자원봉사가 융합된 우유팩과 폐건전지 모으기, 분리배출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수을고래, 옛 술이 오다



유승연의 술과 함께 열두달

[32]

유승연은 전통주를 빚고 즐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양주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누룩 빚는 수을고래 회원들

<수을고래>는 함께 술빚기를 배웠던 인연으로 2017년에 결성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12명의 주당모임이다. 술의 고어인 ‘수을’과 ‘옛것이 오다’라는 뜻을 결합해 ‘옛 술이 오다’라는 뜻인데, ‘술고래’ 주당들의 모임이란 부차적인 의미에도 자부심이 강하다. 과제주를 정해 각자 빚어온 술을 품평해 보는 등 술에 관한 주제를 정해 계절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번 여름 모임 주제는 누룩 빚기였다. 누구는 연잎을 따오고, 누구는 누룩틀을 준비하고, 밀을 준비하고, 품앗이처럼 누룩을 밟아 주며 내년 술 농사를 함께 준비했다.

수을고래에는 세 가지 유형의 술고래가 있다. 먼저 타고난 주인(酒人)이다. 주인은 술을 빚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술을 마시는 것보다 빚는 것이 행복한 연금술사의 후예들이다. 내가 마시는 것보다 자신이 빚은 술을 맛보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좋은 술을 빚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비법 공유가 주된 화제여서, 다양한 술빚기 노하우와 경험치가 술술 쏟아져 나온다. 이들의 술장고에는 실험적으로 빚어낸 술들이 가득 차 있다.

다음은 타고난 주당(酒黨)들이다. 술을 빚는 것 보다는 마시는 것에 달관하여, 술맛을 찾아내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이들도 있다. 이들의 술 마시는 속도는 절대 성급하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와 함께 물 흐르듯이 음주는 이어지며, 낮과 밤, 하루와 이들의 구분이 없다. 혀끝의 감각이 누구보다도 뛰어나 가장 좋은 술맛을 찾아내지만, 결국엔 가장 좋지 않은 술까지도 다 마셔버린다. 명주를 찾아 나서는 일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며, 한 잔의 술로도 한나절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주선(酒仙)의 경지에 이른 이다. 장수에서 술공방을 운영하는 하영택 씨는 조용하면서 유쾌한 사람이다. 술을 마시다 취흥이 돈

으면 그는 피아노로 향한다. 다른 사람들이 한참 열띤 대화를 이어갈 때 갑자기 피아노 선율이 배경음악으로 깔리기 시작한다. 익숙한 선율이 나오면 주당들이 함께 나서 노래를 부르고, 흥이 고조되는가 싶으면 이내 얼후(중국의 현악기)를 꺼서 애절한 소리로 주변을 가라앉힌다. 얼후를 켜는 그의 표정에선 시끌벅적한 모임 한가운데서 홀로 벗어나 달 밝은 강물에 배 띄워 유유자적하는 이태백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 한가로운 술타령인가 싶고 어지간한 한량들의 이야기로 들리겠으나, 우리술을 제대로 빚고,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즐기는 모임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밀주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술은 여러 혼재된 모습 속에서 이제야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시급히 찾아가야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 일그러진 우리의 음주문화다. 술을 멋스럽게 즐기고,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야 문화가 되고, 사람마다 품격있게 마시는 음주문화가 체득되어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술고래들이 넘쳐나 광기와 폭력을 확산하는 악의 근원이 아닌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고 인류의 오랜 문명을 이어준 중요한 발효음식의 자리로 술의 위치를 되돌려 놓아주기를 고대한다.

마을소식

화산교회 청춘대학 “여름방학 끝나고 만나요”

지난 7월 23일 화산교회에서 화산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춘대학이 여름방학 전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 화산교회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청춘대학은 매주 화요일 한글, 성경, 미술, 퀵트, 뜨개질, 체조 수업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반별 수업과 단체 체조가 끝나면 봉사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 2시쯤 어르신들을 각자 집으로

모셔드리면 하루 수업이 끝난다. ‘지역 어르신들 잘 섬기자’는 포부를 가지고 모인 봉사자들은 7월 16일 화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및 어르신 300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기도 했다. 한편, 화산면 청춘대학은 2주간의 여름방학을 마친 후 계속해서 화산면 어르신들께 다채로운 배움과 오락의 즐거움을 선물하려고 한다.

이춘희 마을기자(화산면 수실마을)



시름도 겨우면 흥이 나나

농/촌/별/곡



차 남 호

한 줄기 소나기가 시원하게 쏟아지더니 따갑게 내리쬐던 땀방울이 잠시 누그러졌다. 지난 한 주일 어간의 날씨가 이 모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대우림 지역에서 나타나는 스콜(squall)과 비슷한 현상이다. 아니 그냥 스콜이라 해도 틀림이 없겠다. 오랜 가뭄 뒤에 늦게 찾아온 장마전선이 여느 해보다 오래도록 한반도 상공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이 땅의 기후가 이미 아열대로 바뀌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보면 이 시원한 소나기가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가뭄이 오래 이어지던 지난 6월 하순, 어쩔 수 없이 <가뭄>이라는 노래가 입안을 맴돌았었다. (<농촌별곡> 7월호) 어서 빨리 장마가 찾아와 이 가뭄을 씻어주기를 학수고대하던 나날. 그런데 “이 가뭄 언제나 끝나 무슨 장마 또 지려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큰 장마가 휩쓸고 지

나갔다.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남부를 여기저기 활쾨고 지나던 장마전선이 끝내 이 고장에도 들이친 것. 하룻밤 사이 3백 미리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산간 계곡에 빗물이 넘치고 산사태가 일어나 이재민까지 나왔다. 보통은 논둑이 무너지고 물이 차는 정도였던 우리 동네도 여기저기 넘어가고 무너지는 피해가 속출했다. 급기야 완주군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농수로 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내가 짓는 논배미도 두어 곳에 토사가 덮치는 피해를 입었다. 귀농해서 농사지어 온 지 15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다. 저수지 둑이 무너져 물을 대지 못하는 와중에 가뭄까지 겹쳐 열흘 가까이 김을 매는 생고생을 했다. 그 고생 끝나자마자 이번엔 장맛비에 세차게 얻어맞고 나니 거의 ‘멘붕’ 상황. 장마가 소강상태로 잦아든 뒤에도 논배미에 쌓아둔 모판을 거둬들이다가 트럭이 진창에 빠지는 바람에 트랙터를 불러 몇 시간 사투 끝에 겨우 꺼내는 따위의 크고 작은 사건이 뒤를 이었다. 이렇듯 온갖 고난으로 집철됐던 올 여름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나날. 소나기가 내려도 그때뿐, 습도가 오르면서 날씨는 금세 후덥지근하다. 잠을 이룰 수 없는 열대야도 벌써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지난 몇 해 동안 겪어온 터라 그만큼 견디는 힘도 늘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에어컨을 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가 가속되고, 이상기후의 피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인류는, 특히 권력을 쥔 세력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 내년 여름에는 올해보다 더욱 혹독한 가뭄과 극한폭우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 생각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어제는 중간물떼기에 들어간 지 보름 만에 논배미를 두루 살펴봤다. 짝 금이 가 있어야 할 논배미에 물이 차 있거나 젖어 있다. 논바닥이 말라야 뿌리에 산소가 공급되고 햇새끼치기를 막을 수 있는데, 장마전선이 수시로 빗줄기를 쏟아부으니 마를 틈이 없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농사 망칠 건 아니다. 머잖아 벼에 이삭이 생기는데 그때는 다시 물을 흠뻑 대줘야 하니 사실 별것은 아니다.

고난이 이어지더라도 낙관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노래 <가뭄> 마지막 대목은 “홍홍 홍타령이세 시름도 겨우면 흥이 나나”로 끝을 맺고 있다. 그 곡을 쓴 김민기 선생이 며칠 전 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노래를 무척 사랑했고, 그 삶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편히 쉬시기를 빈다. 비봉 염암마을

완주군의회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순환자원 참여운동

탄소중립 연구회, 두 번째 실천 캠페인

완주군의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연구회가 7월 25일 봉동읍 둔산리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앞에서 ‘빛나는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순환자원 참여운동’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앞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의 활용법을 널리 알리고, 재활용이 귀찮은 일이 아닌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퍼빈으로 시작하는 순환자원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퍼빈’은 4차산업의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의 접목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활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의원인 심부건 의원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천 운동을 통해 완주군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완주지회가 함께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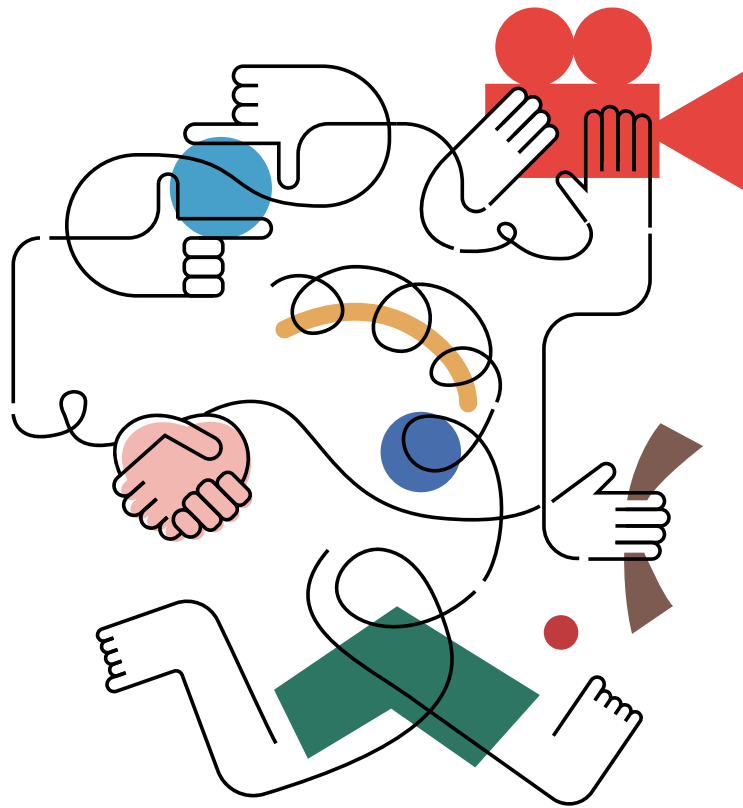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 용 규
- 주 소 55310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한국영상자료원 ^{관련}찾아가는 영화관 연계

완주미디어센터 제6회 품앗이상영회

2024. 8.1.-27.



8/1(목) 오후 2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구이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8/3(토) 오후 2시	<시민덕희>	삼례시장 청년몰
8/6(화) 저녁 7시 30분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용진모아미래도@ 1차
8/8(목) 오후 2시 30분	<시민덕희>	경천애인작은도서관
8/9(금) 저녁 7시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소양풀뿌리교육지원센터
8/14(수) 오후 2시	<미워도 다시한번>	상관 예은노인요양원
8/16(금) 오전 10시	단편 <콩나물> , <나만 없는 집>	화산지역아동센터 (상영장: 화산초 시청각실)
8/27(화) 오후 5시	<패스트 라이브즈> + 플리마켓	이서 모모씨마을/위시아트랩 (상영장: W푸드테라피센터)